

우범기 시장, 조국혁신당에 전주 발전 지원 건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제22대 총선 후 첫 지역 행보로 전주 찾은 조국혁신당 당선인 11명과 만나 적극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지역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조국혁신당에 전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전주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11명을 만나 역사·문화관광·예술의 도시인 전주의 매력을 소개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지역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조국혁신당에 전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 방문과 국가대표 여행사인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무형유산원 인근의 서화예술마을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먼저 시는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일정을 시작한 당선인들에게 시설 전체에 대한 해설을 제공했다. 또,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전주 고도지정 △전주부성 복원 정비 △간재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모델로 평가받는 서화예술마을로 이동한 당선인 일행은 예술테마거리와 서화광장, 오픈스페이스, 거점시설 조성 현장 등 예술마을 골목골목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산 활용으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이뤄낸 예술마을 뉴딜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우 시장은 마지막 일정인 서화예술마을도서관에서 당선인들을 만나 국회의원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전주 방문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국회 활동과 전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총선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전주 시민과 우리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오늘 보여드린 전주시의 현재와 앞으로 변화될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선인들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전주가 거침없는 대변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입주민 생활환경·경비원 등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6억49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5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확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올 연말까지 △육상 방수 △외벽 도색 △설비

교체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가 추진된다. 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하는 등 노후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편의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이지콜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했다.

공단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어울림 버스와 이지콜 택시를 무료로 운행해 교통약자 500여 명의 이동을 지원했다.



그 전날인 19일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분 300개와 음료수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공단은 장애인이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매년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화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훼 농가로부터 구입했다. 특히 교통약자지원부(이지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후원 물품을 구입해 나눔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공단은 교통약자 셔틀버스인 어울림 버스 4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특장차량 58대, 휠체어 장애인 전용인 교통약자 전용 택시(임차 택시) 25대를 운행 중이다.

이지콜은 장애인의 날을 비롯해 어린이날(5월 5일)과 가정의 날(5월 15일) 등에도 무료 운행 등 교통약자 이용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덕진소방서,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봄철 기간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관내 아파트 226개소에 아파트 피난·안전관리 수습단 및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수립하기' 양식 등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했으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대에 피난계획 수립하기 작

성을 안내 한다.

세대별 피난계획 수립하기에는 우리 집 내외에 있는 피난시설을 체크하며 우리집에서 화재발생했을 경우와 다른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구분하여 대피방법을 확인하고 피난행동요령 자료를 참고하여 대피경로를 직접 작성해 본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의 새로운 행동요령인 살펴서 대피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대별 대피경로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상황에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이어져

신유정 의원, 청년 이탈 막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제안
한승우 의원, 단독주택단지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기준 마련 촉구
박혜숙 의원, 시민 안전 위한 도로정비 예산 확보·종합적 대책 강구

22일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신유정(조촌, 여, 혁신동)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 청년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주시 청년들의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데다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유정 의원, 한승우 의원, 박혜숙 의원

해 많은 청년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삼천동) 의원은 "상업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단독주택단지의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단독주택 단지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은 포드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예산 확보 및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포드홀 정비반을 확대 운영하고 보수에 힘쓰고 있지만 시민은 여전히 포드홀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로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적차량 단속 강화, AI 포드홀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안전 도로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